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교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목사에게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 목회자의 대답은

미주기독교일보가 유튜브 ‘교회 속 오해들’ 시리즈를 통해 교회를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듣게 되는 신앙적인 오해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있는 가운데, 성도가 목회자를 비판할 경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내용이 25일 다뤄졌다.

진행자인 이현재 목사(애틀랜트 벨리한인교회)는 먼저 이민교회 안에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했다. 새롭게 부임한 담임목사의 설교를 들은 한 집사가 목사가 아직 큰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것 같이라며 우리(교인들)가 고난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 집사는 얼마 후 척추에 문제가 생겨 한쪽 다리에 불편을 느꼈고 이를 지켜 본 다른 교인들은 해당 교인이 목회자에게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현재 목사는 결론적으로 신약시대의 목사라는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직분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 ‘교회 속 오해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재 목사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

자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을 뿐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를 일반 성도와는 격이 다른 완전히 하나님에 세우신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잘못이 절대적으로 없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혹은 목회자

는 잘못된 일을 해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목사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위 또는 명칭이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예수님의 주된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온 힘과 능력을 다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목회자이건 평

신도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닌 온 힘을 다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사랑의 책무를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벌에 대해 이 목사는 “벌이라는 것은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이켜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면서 벌을 저주의 개념을 구분했다.

이 목사는 “만일 목회자의 잘못을 드러내려 할 때 그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통해 부름받고 혹여 저주할 권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축복만 할 책임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재차 사랑의 빛진바 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미국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의무화 ‘철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백신 의무화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기 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22일 산업안전보건청 관보를 통해 밝혔다. OSHA는 “백신 접종 및 검사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험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방송국인 데이스타 텔레비전 네트워크, 미국가족협회(AFA), 창세기의 해답(Answers in Genesis) 등 백신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켈리 새클

포드 회장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 노동력을 연방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의뢰인들과 미국인들을 신앙에 위배되는 강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OSHA는 지난해 11월 긴급 임시 기준(ETS)을 발표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달 13일 오하이오주 외 vs 산업 안전보건청 사건(Ohio et al. v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사건에서 백신 접종 또는 검사에 대한 임시 유예 발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법령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의회가 제공한 권한만 갖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이 8,4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매주 사비를 들여 의료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했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1일에는 텍사스주 남부 지방법원이 연방 직원 단체와 계약업자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이 “미 의회와 상의 없이 고용 조건으로 수백만 명이 의료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 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위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2년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라야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티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판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2년 2월 14일 (월) - 2월 25일 (금)
합격자 발표	2022년 3월 7일 (월)

■ **봄 학기 일정(10주)**
2022년 3월 28일 (월) - 6월 3일 (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22년 첫 조찬기도회 개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OC전도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5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체펠실에서 올해 첫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신원규 목사가 “유월절의 삶과 회복”(요 2:13-22)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신원규 목사는 설교에서 “다 른 기독교 단체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하는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도전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42대 임기를 시작하며 자문위원 및 이사들이 신임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OC전도연합회 초대 회장 양문국 목

사는 “42년의 역사를 이어 온 것에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지역교회를 섬기는 연합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한편, OC전도연합회는 최근 유튜브 채널(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을 열고 정기 조찬기도회 설교와 특별찬양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일보 사순절 추천 도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시리즈 I, II, III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력을 따라 사순절을 지키거나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기도회를 갖는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 혹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 쓰인 책 역시 드문 편이다. 그나마 출간된 기존 자료들도 밀도 있는 말씀 해설과 묵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신약학자 이장렬 교수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시리즈, I, II, III권이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II>는 요한복음 후반부(13-20장)를 매일 단락별로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의 세 번째 책은 마태복음 전문가인 신약학자 이종재 박사와의 공저였는데, 마태복음 본문 전체(마태복음 1-28장)를 40일간에 걸쳐 통독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별써 3년차로 접어든 코로나19 시국에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경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그러한 나태함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종종 발견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금 성경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 묵상의 환희와 그 능력을 새롭게 경험해야 한다.

이 세 권 모두 신약 복음서 본문에 대한 밀도 있는 해설과 저자 자신의 생생한 말씀 묵상을 담아 사순절 기간 혹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교회, 소그룹, 그리고 성도 개인이 성경 본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도 탁월한 도움을 제공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 삶과 삶 중심에 선명하게 되새기며 매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사순절 기간 또는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교회 차원에서, 소그룹 단위로 그리고 개인별로 말씀 묵상의 여정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또는 40일 특별기도회를 성경묵상의 여정과 서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시리즈는 분명 그 가운데 친절하고도 믿을 만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신학 교수가 쓴 책이라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 속단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몇 페이지만 읽어도 그것이 오산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세 권 모두 해설과 묵상 내용이 탁월할 뿐 아니라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 독자에게 쉽게 다가온다. 아울러 매일의 묵상 분량마다 영적 사색과 기도를 돕는, 생생한 묵상 질문과 ‘한 줄 기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 이장렬 교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각 권 별 특징 또한 눈에 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I>은 누가복음 22-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사를 짧은 본문 단위로 나누어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기획되었다.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 예일(Yale) 대학 모의유엔대회에서 4개 상 수상



Yale MUN 에 참가한 KAC MUN 학생들 사진

한미연합회 (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3박 4일 동안 예일(Yale) 대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온라인 모의유엔대회(YMUN)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비롯한 총 4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올해로 48회째 개최된 Yale 모의유엔대회는 경쟁이 치열하

고 어렵기로 이름난 대회로, 전 세계 약 200개의 고등학교에서 1,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에게는 모의유엔 뿐만 아니라 Yale에서 주관하는 Yale Day와 다양한 스포츠 강연의 일정에도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었다. 19명의 KAC MUN 학생들은 각각 다른 UN 회원국 국가의 대표로서 총 13개의 위원회에 배정되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과 협상을 벌인 끝에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s)에 참가한 ‘제이미 림 (Jamie Lim)’ 학생과 ‘지니 김 (Jeannie Kim)’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고,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 참가한 ‘매튜 헤이 (Matthew Hsieh)’ 학생과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에 참가한 ‘마이클 헤이 (Michael Hsieh)’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제5회 캘리포니아



여성모의세미나 교회 2022

일정: 3월7(월) - 9(수)

장소 & 문의 (순전한 교회, 이진환 목사)
2101 W. Crescent Ave.#K Ahaheim, CA 92801
714-469-2220

캘리포니아 만사인 대표 : 이흥록 목사 회계 : 이성주 목사

초대합니다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동행, 동역할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모십니다.

왜 여성교회 세미나 인가?

강사: 송영선 목사 (만사인 대표, 빌립보교회 원로)

제자훈련이란 컨셉이 심한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받고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무엇이 문제인가? / ✓ 어떻게 “제자훈련”을 개혁 할 수 있는가?
- ✓ 건강한 교회의 모형은 무엇인가? / ✓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10가지 가치 위에 세운 빌립보교회

‘여성교회’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빌립보교회(Church of Phillip)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대로 새 포도주인 복음은 언제나 새 부대인 가치관과 문화에 담아야 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회 문화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발전한 10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직 예수
- 머슴의 도
- 한 영혼의 귀중함
- 목양 우선
- 과정 중심
- 평신도 사역
- 두 날개의 교회
-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 안팎이 똑같게
- 그럴 수도 있지

여성교회 세미나 신청자격

- 여성교회 열가지 가치관과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리더
- 제자훈련을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의 방법으로 삼는 리더
- 평신도 동역자를 양육과 재생산의 목양자로 세우기 원하는 리더
- 부교역자나 평신도 리더는 담임목사와 함께 등록 가능 (인원 제한 있음)

등록비: \$150

등록 마감: 2월 21일까지
등록 제출 : mansain.org

재정난 겪은 클레어몬트신대원, 법원 매각 명령에 항소 준비

재정난을 겪고 있던 연합감리교회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역 고등교육기관 컨소시엄에 캠퍼스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LA고등법원은 이달 초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은 지역 학교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대학(Claremont Colleges, Inc)에 캠퍼스 구매를 제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ST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항소를 고려 중이며, 학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ST 회장인 제프리 환(Jef-

frey Kuan) 목사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및 장래 들어올 학생들이 CST에서 자신이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CST가 현재 자산으로 계속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안정성과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클레어몬트 대학과 성실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ST는 지난 2015년 재정난으로 인해, 감리교 선교부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오리건주 세일럼의 윌라멧대학교와 합병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클레어몬트대학은 1957년 계약을 인용해, 자신들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전경.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CST 부동산을 인수할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으며 CST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클레어몬트대학은 클레어몬트대학원, 클레어몬트맥켄나대학, 하버머드대학, 케크대학원 연구소, 하이자대학, 포모나대

학, 스크립대학 등 7개 회원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컨소시엄은 성명에서 “CST는 1957년 클레어몬트에서 운영을 위해, 협상된 가격으로 TCC에게서 토지를 구매했다. 당사자들 간의 원칙적인 합의에 따라, CST가 만약 부동산 매각 또는 양도를 원하거나 클레어몬트를 떠나고자 할 경우, 합의된 가격에 재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ST는 1957년 환매권에 동의했으며, 그 권리는 1957년 계약에 문서화돼 있다. 그 이후로 이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돼 왔다”고 했다.

컨소시엄은 새로운 학생 숙소, 교실 공간 추가 등 자산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독자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어요”



후드티 50개를 제작해 노숙자들과 독거 노인들에게 선물한 앤드류 백 군(맨 왼쪽) ©코이노니아 선교회

작년 한 해 동안 미디어 아트 전공으로 대학 입시준비를 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 2년 여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겪

고 있으며, 특히 노숙자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경우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위한 작품 구상을 하면서 팬데믹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팬데믹 동안 각자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슬기롭게 컨트롤하며 지내

는지 그 모습을 로고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숙자들과 저소득층 노인복지를 위해 10 여년이 넘게 일하는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종희 목사님을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목사님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용돈으로 후드티 50개를 제작하여 노숙자들과 독거 노인들에게 선물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 날 아침에 박종희 목사님이 섬기시는 노숙자 텐트촌을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컵라면, 물, 간식, 패딩, 성경책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후드티를 나누어 주었는데, 노숙자들이 너무 반가워하며 고마워하였습니다. 노숙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더 준비해 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참여한 노숙자 방문과

섬김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내게 너무 따뜻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봉사에 참여하기전에는 노숙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굽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으르다, 약에 중독되어있다, 위험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로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만났던 노숙자들은 그냥 힘든 환경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박종희 목사님은, “이 곳에 있는 노숙자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의 주변에 기댈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노숙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노숙자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봉사 후 다시 몇 곳의 노인아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연령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암 투병으로 인해 초췌한 할머니, 장애인 아들

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는 할아버지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목사님의 방문에 너무 반가워하고, 목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에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후드티를 선물하자 그 자리에서 입어 보며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우리 주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가슴깊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 어떤 어둠도 없앤다
Righteous Outlaw
복음통일선교도서의 편지자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세수교회), 주성영목사(장신대 영예교회), 이종희목사(장신대 영예교회), 송경원목사(복음선교회), 권준호목사(중앙침례교회), 신명진목사(중앙침례교회), 유관석목사(중앙침례교회), 김진희목사(KCC중앙교회)

• 책의 가격은 2000원이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원당 + \$5 우송료

기독교동행서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41

“선교 영성으로 잘 훈련된 한 가정 이야기(1)”

미전도 종족 연구와 선교 전략으로 알려진 선교의 거장 랄프 윈터 목사님은 그의 저서 기독교 문명 운동사를 통해 선교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영적 전쟁임을 말했다. 개인이나 교회가 주님의 선교 지상 대명령을 인식하고 선교의 길을 나가려 할 때 어김 없이 부딪히는 악한 사탄의 방해 공격이 있음을 말했다.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그렇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사명자들이 열방으로 나가려 할 때 선교를 대적하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해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대신학자도 말한 것이다.

필자의 교회에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싶다. A집사 부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과 대학에 다니는 딸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아침 A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에 불이 났다고 했다. 우리 부부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집이 거의 다 전소되었을 때였다. 가족들과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 차고 쪽 문틈으로 타는 냄새가 났고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검은 연기와 불길의 물려 들어와서 가족들은 귀중품을 챙길 겨를도 없이 몸만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였다.

가족들은 전소된 집 바깥에서 서서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때 우리 부부가 도착했다. A집사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것은 영적 공격입니다” 곧바로 선포했다. 이유는 다음 날 아들이 유럽 선교집회를 위해서 미주 청년팀에 조인하여 예배팀을 섬기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고 그 다음 주는 부인 집사가 단기선교팀과 합류하여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911 차량들과 화재 조사반들이 발빠르게 화재현장을 살피고 그 가족들은 가까운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다. “목사님! 우리 알렉스, 내일 선교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내게 전했다.

우리 교회 예배팀을 섬기는 이 청년은 가정이 당한 어려움이 유럽 교회들의 선교 부흥을 위해 예배팀을 섬기기로 한 선교사역을 막기 위한 영적 공격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가 공항으로 라이드 하여 그는 팀원들과 같이 독일로 떠났다.

미주 청년팀이 가려고 한 유럽 집회는 독일에서 처음 열리는 “선교비전캠프”였다. 4일간 유럽현지교회 선교 관심자들이 약 300명 가량 모여 선교부흥집회를 가졌다. 그것이 이루어진 배경은 놀랍다.

2년전 미주의 우리 선교단체 한 여성 청년 사역자가 마음 아픈 뉴스를 접했다. 유럽의 교인수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이슬람사원으로 전락하고 술집에 팔려서 예배드려야 할 교회 건물이 이교도들과 술꾼들에 의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 청년은 깊은 기도 끝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홀로 유럽으로 갔고 독일과 영국 등의 교회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면서 마주치는 목사님, 성도님들 간에 그녀는 열방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권 선교를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 먼저 선교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집회와 그 후 선교 관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학교를 개설하는 꿈을 나누었다. 집회가 열리면 참여하겠다는 교회와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후 1년여 기도와 준비 끝에 “유럽비전캠프”를 열게 되었다.

그 비전캠프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미주의 예배팀이 자비량으로 지원하여 우리 청년도 합류한 것이다. (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① “출생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창세기(창35:19, 48:7)에 등장하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울러 베들레헴은 현대까지 도시로 남아서 예수님 출생지의 위용을 과시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교(약 6마일)에 자리 잡아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성읍들 중에 하나(대하11:5~6)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귀향하던 야곱이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은 아내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고 갑니다. 슬픈 라헬의 죽음과 기쁜 베냐민의 출생이 대비되는 베들레헴은 훗날 예수님의 슬픈 출생을 예언하는 듯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시대에는 스불론지파에게 베들레헴이 주어졌고, 사사 시대에는 미가의 집 제사장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며, 에브라임 지방의 한 레위인의 첩의 고향도 베들레헴이라고 소개됩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롯기의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왕의 고향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을 베들레헴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Caesar Augustus)가 인구조사를 명하자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지 베들레헴을 찾아와 출산합니다. 이때는 헤롯 대왕이 분봉왕이었습니다. 당시는 권력욕이 강했던 헤롯은 자신의 뜻대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성을 잃은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 남자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여러 역사 자료를 살

핀 후에 이 때 살해된 남자 유아들이 25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베들레헴에 그리스천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들레헴은 여러 전쟁을 겪습니다. 132년부터 135년 까지 있었던 유대인 3차 반란, 즉 바르코바(Bar-Kochbar)반란 기간에 로마 군인들이 베들레헴을 황폐하게 했고, 모든 유대인들은 도시 밖으로 추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이슬람세력의 침공으로 베들레헴은 수난을 당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하자 예루살렘 주교였던 성 마카리오가 황제에게 성지에 교회를 세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어머니 헬레나에게 유대 땅 방문해서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헬레나는 78세의 고령에 유대 땅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후 헬레나는 유대 땅에 3개의 교회당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세 개의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예수님 무덤 위에, 또 하나는 예수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 산에 세웠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교회당은 예수님 탄생 동굴 위에 339년 5월 31일에 세워졌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 탄생 교회를 콘스탄틴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당은 6세기 사마리아 반란시기에 불타버렸습니다. 그 후

6세기 중엽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더욱 화려한 탄생 기념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에 여러 보조 건물들이 보강되었습니다.

지금의 탄생 기념 교회는 531년 유스티아누스 황제(527-565)가 완공한 건축물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았지만 건재를 과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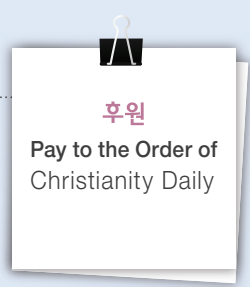
그로부터 20년 후인 638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회교 군주 오마르 역시 이 탄생교회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오마르는 오히려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코란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종려나무 아래서 낳았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회교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탄생 기념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건축물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 교회는 현재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간의 공동소유로 운영됩니다. 종교간 갈등을 막기 위한 현상유지법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세 종교가 교회당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공유합니다. 이런 공동소유와 공동 관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기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가 복잡한 규정과 법을 지키며, 공동의 소유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은 세 개의 대학교와 다수의 박물관이 있는 기독교 문화 도시입니다. 또 매년 수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입니다. 탄생 기념 교회와 4세기에 제롬(Jerome 혹은 Hieronymus)이 세운 수도원이 인기 있는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세력이 베들레헴을 차지할 때마다 세웠던 모스크도 유명한 유적으로 베들레헴에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미드웨스턴 컬럼||

세상에서 배운 리더십 (1)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마23:10)

우리의 목회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오늘날 과연 신앙공동체가 지녀야 할 성경적 본질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자신할만한 목회리더십 사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이런 고민은 우리의 목회 현실이 성경적 원리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솔직히 자인하는 격이다. 현대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탁월한 리더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 조직체는 한 지도자의 리더십 영향이 관련 조직의 산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의 공적 기관 운영에 익숙한 현대의 교인들은 교회의 사역자에게도 동일한 지도자로서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제 교회 구성원들조차도 세상의 문제를 다루듯 교회의 문제를 대하는 것을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의 지도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대로 목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된 셈이다.

기업에서는 실력 있는 CEO를 모셔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여긴다. 헤드헌팅이란 말이 있다. 헤드헌팅이란 기업의 최고경영자, 임원, 전문기술인 등 고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그런 인물을 소개해 주는 일을 말한다. 이런 작업을 주 업무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 이를 서치펌(search firm)이라고 한다. 이런 서치펌의 최고 순위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많다.

잭 웰치(Jack Welch, 1935-2020)도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다. 잭 웰치는 20세기 미국 기업세계에서 대표적인 CEO 중의 한 사람으로 '전설적인 경영자'란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다. 1999년 <포춘>지는 그를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하였다. 그는 계속되는 수입 적자로 인해 기업의 미래가 암울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로 부임

하여 2년 만에 기업을 흑자로 돌린 특출한 재능의 소유자였다. 세상의 기업 관계자들은 그의 능력을 세기적인 것으로 칭송한다. 어떻게 잭 웰치는 그런 업적을 남겼을까?

사실 웰치는 8-90년대 미국 산업계에 해고 열풍을 불러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기업을 살린 영웅적 이미지 뒤에는 또 다른 그의 과격한 정리 해고자로서의 면모가 감추어져 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회생 시나리오의 각본을 실행에 옮긴 웰치의 결단력을 용단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구조 조정 희생자들의 눈물이 있었다. 기업에서 리더에게 기대하는 바는 오직 물질적 성과에 있다. 어떤 기업 성과를 낳았는지에만 초점 맞춰진 것이 기업 리더십의 생리이다.

군대에는 군인들을 통솔할 지휘관이 필요하다. 전쟁 중에 아군의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적군을 무력화함으로써 승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지휘관에 달린 문제일 경우가 많다. 전쟁의 역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적 인물의 출현에 초점 맞춰지기 마련이다. 전쟁의 동기가 무엇이며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무명의 군인들이 희생되었는지는 영웅적 인물의 화려한 커튼 뒤에 가려져곤 한다. 아마도 근세 유럽의 역사 속에서 나폴레옹만큼 화려하게 그려진 인물도 없을 것이다. 그를 묘사하는 수많은 영웅적 에피소드는 전쟁사를 넘어 인물사에서도 뛰어난 필체로 그려진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 1769-1821)는 코르시카 하급 귀족 출신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속에서 영웅으로 등장하였으나 프랑스 대혁명의 공화 정신과는 모순된 황제의 자리에 등극한 인물이다. 이렇듯 그의 모순적 삶의 스토리들이 그를 영웅적 존재로 더욱 부각시킨다. 타고난 야망가인 나폴레옹은 19세기 유

럽의 역사를 전쟁사로 뒤덮은 대표적인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수사적 언변과 대중적 선동, 그리고 기회 포착에 특별한 재능을 지녔던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실패한 전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무수한 희생자들이 쌓아 올린 탑 위에 자리한다.

사람들은 그 탑 위에 세워진 영웅의 동상만을 바라보고 있다. 대개 영웅의 이야기는 그의 생애의 특출하고 비범한 특징에 초점 맞춰진 나머지, 간과해서는 안 될 배후의 진실의 세계를 배안시하는 위험성이 따른다. 이렇듯 전쟁 영웅의 이야기는 리더십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칫 특출한 것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소재가 되곤 한다.

지난 세기 후반에 영국의 정치적 인물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 중에 대처 수상이 있다.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는 1979년 집권 이전, 노동당 정부가 고수했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영국 경제의 재성을 꺾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 그녀는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과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 근로의욕 저하 등 소위 영국병이라 불리던 고비용 저효율의 낙후된 경제 구조를 개혁한 인물이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치적 결단과 집념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흔히 '철의 여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대처는 집권기(1979-1990)인 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 승리했고 이후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 속에서 3선에 성공하여 영국 총리 중 가장 긴 11년 7개월의 최장수 총리가 되었다. 그녀는 유럽 통합에 반대했고 줄곧 참여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유로 인해 보수당 당수 경선에 실패하여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입장의 경제체제

를 도입하여 영국병을 치료한 대처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지닌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영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인물이지만 과도할만큼 강력한 통치로 민영화 남발, 각종 정책 실패, 이들의 범죄행각, 칠레 독재자 옹호 등으로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과 반대자를 남겼다. 그로인해 사망했을 당시 반대자들이 축배를 드는 등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세상에 유명한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들 대부분은 그들의 통치력의 결과로 유익을 얻은 편과 손해를 입은 편, 양단이 그것이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세상의 리더십 연구는 한 인물의 전생애 전기적 연구 보다는 대개 장점이 되는 몇 가지 특징만을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잭 웰치의 사례에서 보듯 경영학에서 말하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오직 기업의 수익 구조와 관련된 경제적 성과에 초점 맞춘다. 문자 그대로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기업의 수입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뿐이다. 그의 전략적 선택이 구성원 개개인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말이다. 최고 경영자의 인격이나 사생활, 도덕성과 인테그리티 따위에는 굳이 시선을 모으지 않는다. 오로지 그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 기술력과 의사소통능력 등 경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적 재능에 집중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영학적 리더십의 초점은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리더십의 초점과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서 살팍듯 정치학이나 군사학에서 말하는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평가는 국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위상과 전쟁에서의 승전에 따른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얼마나 펼쳐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군대에서 명성을 얻은 나폴레옹이 당시 프랑스의

통치력에 불과했던 이탈리아 인근 코르시카 섬의 하급 귀족 가문 출신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의 무공을 통해 화려한 진급을 계속하였고 그의 정치적 수완을 통해 최고 통수권자(결국은 황제)의 위치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 삶의 속내보다는 대중적 인기와 호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치학이나 군사학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중심은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리더십의 문제와는 다른 길을 간다고 할 수 있다.

대처 수상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행정학에서 말하는 정부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혼란스런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서 행정적 결단력과 판단력에 주목한다. 통계 수치와 경제 자료 분석으로 판단되는 행정 지도자의 면모는 그 지도력이 가져온 결과

이면에 급변 사태로 발생한 희생 잔해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환호와 박장대소가 있는 한, 일부의 한숨과 비분강개는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총체적으로 무엇이 더 이득이고 누구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오늘날의 사회 현실에서 모두를 위한 정치행정 리더십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행정학적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리더십과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계속)



심민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상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캐럴리. Cell 714.345.498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장총 세미나 “교회 연합 논의 과정, ‘자기 비움’ 노력 있어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장총)가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이대로 좋은가(부제: 미래지향적인 한국교회 연합운동)’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들은 한교총·한기총·한교연 연합기관의 통합이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했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계 연합기관들이 주 안에서 하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세미나가 한국교회에 새 이정표를 제시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 근거한 연합운동 역사와 본질’을 주제로 발제한 이희성 교수(총신대 구약학)는 “교회 연합운동의 주체가 되는 지도자들은 성경 진리에 대한 인식과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외형적이며 제도적인 연합을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는 먼저 교회 연합의 성경적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세

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기 비움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장로교회의 교리와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면서도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칼빈은 당시 영국교회 대주교 크레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주의 입장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제를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교회 연합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대양(大洋)을 열 번이라도 건너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이어 “칼빈의 이러한 태도,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정신은 오늘날 교회 연합의 과제를 앞에 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된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연합주일 지키기, 교회 내 공교회 가르침 활성화, 연합부흥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25일 ‘한국교회 연합기관 이대로 좋은가(부제: 미래지향적인 한국교회 연합운동)’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송경호 기자

회 등을 제시한 그는 “개인의 봉사과 전도에 대한 가르침은 넘치지만 교회론이 부족하고 거시적인 공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연합운동의 방향과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변창배 목사(전 예장통합 사무총장)는 “한국교회 대사회 리더십과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연합기관이 과도한 권력 경쟁에 몰두하면서 방향을 잃고 한국교회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목사는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연합운동을 전개했다”며 “그러나 해방 후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교파 분열이 일어났다. 연합기관도 다수 임의단체가 설립되었다. 그러다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수적인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했다.

변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첫 번째 방향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제시하며 “우선적인 대응 방향은 자율방역을 통한 예배와 교회활동의 정상화, 한국교회 감염병 대응에 대

한 대사회 소통 강화, 감염병 시대의 새로운 선교 과제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각 교단과 선교단체, NGO, 각급학교, 병원, 지역교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방향으로 ‘디지털시대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 모색’을 꼽은 그는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깊이 숙고하며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근본적인 생활방식의 전환을 이루는 종교적인 일대 회심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윤석열 후보, 한교연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등 대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교회 연합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윤 후보(왼쪽)와 송태섭 한교연 대표회장(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한교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지도부와 만나 차별금지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한교연 측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윤 후보가 바쁜 대선 유세 일정으로 한교연 사무실을 방문하

지 못하게 되면서 오찬에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한교연 인사들을 초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는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서 윤 후보는 먼저 “제가 한교연 사무실로 찾아뵙는 게 도리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

로 피치 못하게 오찬 자리에 모

시게 됐다”며 “허심탄화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송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특히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는 문제들에 대해 윤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교계의 목소리도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선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 한교연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를 차별해선 안 된다며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분명 위험적 요소라고 판단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예배와 모임을 통제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방역을 구실로 예배를 통제하는 건 일선 목회자들에게 종교 탄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과학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바람에, 방역도 실패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특히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민 자율방역에 나서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또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는 “현 정부가 대북 굴종으로 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북한이 새해들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정부는 ‘도발’이란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선제타격론’을 꺼내자 여당에서 일제히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최근 쏘고 있는 미사일은 1~2초 내에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일단 쏜 후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 후보 측에서 권성동 의원과 임명배 실장, 한교연에서는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대외소통위원장 장상홍 장로,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가 배석했다.

송경호 기자

기독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에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명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김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자세례예)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세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복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름 소년 초정신의 초름, 바른교회관의 초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기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J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 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국무장관 “北 비롯한 인신매매 관여국 지속 압박해야”

범정부 전담조직 회의서 강조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페이스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등 인신매매 관여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5일 화상으로 열린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전담 조직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신매매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정부, 민간, 시민 사회 등을 아우르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일조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꼽으며, “이러한 나라의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언론 성명에서도 “올 한 해 미 국무부는 쿠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나라의 정부를 지속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내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및 무역 관련 지원 외 다른 자금 지원 금지를 지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을 인신매매 실태 최악을 의미하는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해 왔다.

강혜진 기자

데이비드 예레미야 “탈진리 시대에 성경 사수해야”



2022년 1월 23일 데이비드 예레미야 목사가 캘리포니아 새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전하고 있다. ©새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 유튜브 영상

미국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터닝 포인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예레미야(David Jeremiah) 목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진리가 점차 사라지는 ‘탈진리 세계(post-truth world)’ 가운데 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캘리포니아 새도우마운틴 커뮤니티교회에서 진행 중인 3부작 설교 시리즈의 2부 ‘청지기 직분’ 편에서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진리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담당하게 하셨지만, 성경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은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예레미야 목사는 진리가 “우리 문화와 텔레비전, 잡지, 신문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탈진리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또 “탈진리라는 말은 예전에는 진리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설명하는 단어”라며 진리에 대한 정의가 “객관적 토대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레미야는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삶에 통합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두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매우 힘든 날이 온다. 진리에 대해 진지해져야 한다”고 했다.

서던 캘리포니아 신학교(Southern California Seminary) 산하 예레미야성서 연구 학교(Jeremiah School of Biblical Studies)의 총장인 그는 오늘날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며 진리의 청지기 사명을 수행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는가? 예전에 우리는 읽기, 쓰기, 산수를 공부하곤 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요소들이

훨씬 아래로 내려와 유치원 때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주입되고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학교에 스며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인들에게 기독교 학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칼을 든 전사처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청지기 직분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변함없는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며 “이는 우리 것이 아닌, 그분의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 아닌 그분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예레미야 목사는 성경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다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면서 “우리가 이론 큰일들과 가진 많은 것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자. 그분이 주시고 맡기신 것을 그분을 대신하여 관리할 때 우리는 청지기가 된다”고 전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청지기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주셨고, 그분을 대신해 우리가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며 “그분은 우리가 이 진리를 보호하고 선포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을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을 쓰고자 자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항상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결코 기독교인에게 후회로 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미 상원의원 등 5명 “핀란드 기독교원 구속, 신성모독법 초래” 경고



페이비 레세넨 의원, 핀란드 전 기독교민주당 의장 ©ADF International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핀란드 기독교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결혼과 성에 대한 “세속적인 신성모독법”에 해당하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 5명은 24일 헬싱키 지방 법원에서 페이비 레세넨(의원의 재판이 열린 당일, 라샤드 후세인 국제종교자유(IRF) 미국 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마르코 루비오, 제임스 랭크포드, 조시 홀리, 마이크 브라운, 제임스 인호프 상원 의원은 후세인 대사에게 “핀란드 법의 사용이 세속적인 신성모독법에 해당한다는 데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 법이 “독실한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 및 다른 종교의 지지자들이 세속적 경향에 반하는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고발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핀란드 검찰이 레세넨 의원과 포흐올라 주교가 표현한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종교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있고, 이는 정부의 간섭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제종교자유대사 측에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고, 부당한 기소를 규탄하며, 핀란드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다른 사태들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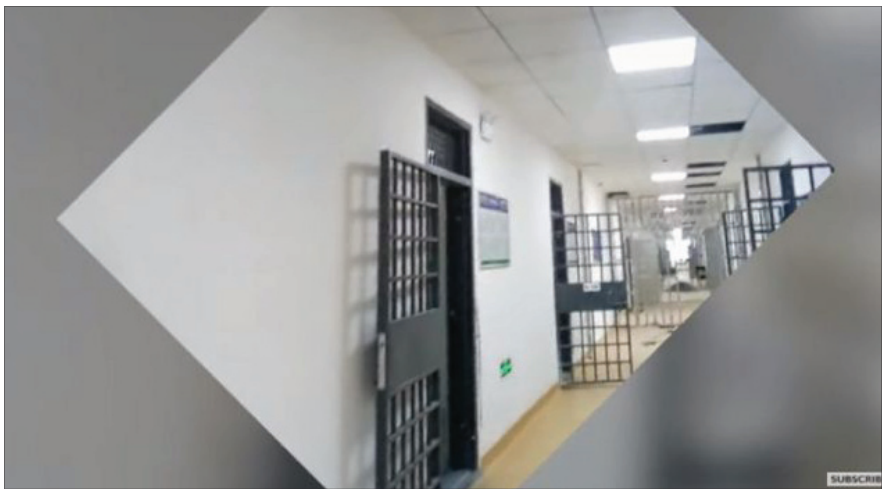
아울러 “미국과 핀란드 사이의 오랜 우호 관계에 대단히 감사하다. 양국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역사, 문화,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핀란드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오랜 헌신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레세넨 박사와 포흐올라 주교의 법률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 인터내셔널(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법원은 2월 14일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3월 초에 판결할 예정이다.

핀란드 형법에 따르면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12월 포흐올라 주교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진 기자

美 애리조나주, “中 위구르족 강제 노동 상품 금지법” 발의



BBC가 공개한 수용시설 내부 사진. ©영국 BBC 보도화면 캡처

미국 애리조나주 의원이 중국 내 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저스틴 월메스 주하원의원은 27일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과 서비스 구매 시 계약서에 중국 위구르족 강제 노동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HB 2488)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월메스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의원 2명 등 총 9명이 초당파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월메스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사 연구자로서, 선량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 일어나는 비극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 두고 있고, 이는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페이지”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가 이 끔찍한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어떤 이들과도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은 신장 위구르족 이슬람교 신도, 티베트

불교도,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무신론과 진화론에 뿌리를 둔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산당에 충성을 거부한 종교인들을 가혹히 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신장 지역에서는 수십만 명 이상을 수용시설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동원, 생산한 상품을 저가에 수출해 외국의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기도 한다.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산으로 불공정한 게임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호주 국방안보분야 국책연구소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2020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7~2019년 위구르인 약 8만 명이 중국 전역의 공장에 ‘일꾼’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ASPI는 “애플, BMW, 겐, 화웨이, 나이키, 삼성, 소니, 폭스바겐 등 적어도 82개 유명 글로벌 브랜드가 위구르족 노동력을 공급망에 강제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해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찬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제물 OC제물
주일 7부 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 9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7:30
주일 3부 평일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찬양회: 오후 7:30
금요성경찬양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2부: 11:00
19514 Resala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8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일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우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평화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월/목/토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종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름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전 세계 종교 인구, 무교인 보다 가파른 증가”

20년간 신자수 1.27%, 무신론자 0.18% 증가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종교 인구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스가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는 고든콘웰신학교 세계기독교연구센터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세계 기독교의 7가지 주목할 만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 ‘2022년 세계 기독교 보고서 현황’ 보고서는 종교인이 무종교자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는 1900년, 1970년, 2000년, 2022년 중반의 기독교에 대한 통계와 2025년, 2050년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 수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1.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신론자의 수는

0.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신론자의 수는 2050년까지 약 1억 4,3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교인의 수는 2000년 약 53억 명에서 현재 약 70억 명으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1.17% 증가했다.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교파는 ‘복음주의(1.8%)’와 ‘오순절/은사주의(1.88%)’이며, 오순절 교인의 수는 전 세계에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오순절 교인은 1900년 1백만 명 미만에서 불과했지만 2050년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33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오순절은 현재 기



©Daniel Tseng/ Unsplash.com

독교 교파 중 두 번째로 큰 집단이다. 1위인 가톨릭은 2022년 12억 5천만 명의 신자가 있고, 2050년에는 그 수가 약 1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라이프웨이는 기독교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남반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독교가 주요 기독교 국가에 덜 집중되어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고 전했다.

기독교가 다수 종교인 국가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2000년 59%에서 2022년 53.7%로 줄었다. 이 연구는 2050년까지 기독교인의 과반수(50.4%)가 기독교가 다수가 아닌 나라에서 살 것

이라고 추정했다.

수년간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인에 대한 노출도 해마다 증가했다. 2022년 조사된 비기독교인 중 18.3%가 “기독교인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1900년에는 5.4%에 불과했다. 라이프웨이는 기독교인을 알고 있는 비기독교인 비율이 2050년 20%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2022년에 인쇄된 성경의 수는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쇄된 성경의 수는 2000년 5,400만 권에 비해 올해는 9,300만 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50년 1억 2천만 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순교한 기독교인의 수는 2000년 160만 명에서 2022년 9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라이프웨이는 2050년에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강혜진 기자

“화려한 올림픽 너머, 고통당하는 중국교회 기억하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되는 국립경기장.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 금요일 개막해 2월 20일 일요일까지 진행된다. 펄박 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과 동역하는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 중국의 펄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을 발표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올림

픽 선수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인내가 요구되는 ‘펄박 올림픽’을 겪고 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자국 선수를 응원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매일 화려한 행사와 경기장 너머로 눈을 돌려, 개최국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중국교회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이 전 세계

에 가장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 쓰겠지만, 동시에 기독교 탄압의 끈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린편황금등대교회’ 지도자 9명이 체포되고, 타이저우에 있는 기독교 서점 주인의 향소가 기각되고, ‘타이위안신청 개혁교회’ 성도 5명이 형을 선고 받고, 선전에서 전자 성경 플레이어 제작하는 기독교인들의 향소가 기각되는 것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이제 3월 1일부터 기독교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고 있는 동안에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다음은 순교자의소리가 발표한 기도제목들.

2월 10일: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복

음을 전하다 2014년 북한으로 납치된 장백 출신 조선족 장 집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국 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불법으로 구금된 장 집사의 석방을 북한 측에 강력히 촉구하도록 기도해 달라.

2월 11일: 성경 플레이어를 통해 전도 사역을 펼치다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수감된 선전의 제작자 기독교인들이 수 년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상황이니 기도해 달라.

2월 12일: 중국 각지에 성경이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기도해 달라. 특별히 ‘상자 속 주일학교’ 상자들이 안전하게 배포되어, 많이 배우지 못한 평범한 기독교인도 집에서 가족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2월 13일: 2021년에 여섯 차례 구금되었으나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담대한 거

리의 복음전도자 첸웬셴(Chen Wenshen)을 위해 기도해 달라. 2022년에는 그가 주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2월 14일: ‘린편황금등대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 교인이 5만 명인 이 가정교회는 교회 건물 파괴를 포함하여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아 왔다. 지난달 체포된 이 교회 지도자 9명을 위해 기도해 달라.

2월 15일 : 판용광(Pan Yongguang)목사와 ‘메이플라워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2019년에 중국 선전을 떠나 한국에 온 이들은 망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가 좋지 않다. 이번달, 주님께서 망명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2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기독교 회의에 참석했다가 불법 국경 횡단 혐의로 체포된 ‘타이위안신청개혁교회’ 지도자 5명과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

김유진 기자



LA office/Showroom

리모|델링|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오픈기념 세일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2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전적상담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양떼 유익을 위한 신앙지혜(1)

히브리서 13:7-17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혹 우리 목사님은 독재자라서 자기 마음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떼를 데려다 맡기셔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이 양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일러줘서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 사명에 입각하여 그 양떼가 제 구실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목자와 더불어 합심전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해야 합니다.

7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 목사의 행실, 즉 그가 설교하던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그가 양떼에게 지시한대로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지를 주의해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 목자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육신의 남은 때와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섬김의 제물되기를 힘쓰는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대로 생활을 엮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소망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생애를 바쳐 수고와 봉사하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와 양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묶어 주신 관계입니다.

한 영혼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해 기도하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 보살피는 것은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책임목회의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생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가운데 모세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까지의 광야생활이 곧 여러분들이 죄악세상을 빠져나와 진리의 교회에 속하여 함께 천국에 가고자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더욱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목사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양떼에 대한 주권을 그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고 통솔하여 책임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에게오마이)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의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1:5-6)’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여호수아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 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3:7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charisma)는 사전적 의미로는 대중을 심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영적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권위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면 모세가 대언하여 말할 때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면 그 백성에게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영권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21:15-17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중략)...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하신 것이 ‘헤게오마이’입니다.

아직도 목사를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입장을 따라가야 할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양떼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각기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형편에 맞추어 달라고 자꾸 떼를 쓴다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목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천국가는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성경사역학철학박사
- 목회학석사
- 교육목회학박사
- 목회학박사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강준민 칼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의 지혜

우리는 누구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벧전 3:10).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전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나쁜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전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불조심을 하듯이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날을 보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

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날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벧전 3:10)하고 권면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을 심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악과 거짓을 심으면 좋은 날 보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깨사한 말에서 금할찌어다”(시 34:12-13, 개역한글).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언어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먼저 그의 언어로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언어였습니다. 그의 언어는 확신에 찬 언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대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많은 문제가 말에서 생깁니다. 말을 조심하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군평은 “입과 혀는 근심의 문이며,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언어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언어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히 11:3). 말씀은 창조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마 8:16). 말씀은 치유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요 11:43). 말

씀은 회복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감화시키셨습니다. 말씀은 감화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말씀은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길 중의 하나는 병든 언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언어를 좋은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좋은 날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 언어를 좋은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존중 받기 원한다면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멸시하는 말을 하면서 존중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 받기 원하신다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증오하는 말을 하면서 사랑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칭찬 받기 원하신다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만 지적하면서 칭찬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격려 받기 원하신다면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을 낙담시키는 말을 하면서 격려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축복 받기 원하신다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상대방이 축복하는 말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처럼 우리 인생의 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침묵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특별히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화가 나면 날카로운 말,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날카롭고 극단적인 말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침묵과 깊은 숙고 중에 태어나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치유합니다. 부디 좋은 말을 통해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가 아니라 내 목숨을 제물

로 드렸는데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마음이 흡족하신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나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이는 것이 소원인지요?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죽기는 죽겠는데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지요. 어차피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할 목숨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서 내 목숨 값은 하고 죽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 김정일보다 더 심

술이 사납고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그 사실을 더 정확히 알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확 죽여 주십시오.”

기도라기보다 패악에 가까운 말을 쏟아놓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졌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시다.

“아들아, 아들이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세계만방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온몸이 저리고 두 귀가 울리리라.”

나는 그 차디찬 감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감방을 나오고 나서 작업장에 돌아가서야 하나님이 꾸미신 천지를 진동하는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은 사실이였다.

어느 날 계호원이 오더니 내게 말했다.

“이 개새끼들이 뱀돼지 눈깔을 해가지고 히뽉거리며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목숨만은 건졌네.”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해서 사무실에 갔더니 감방 안에서 벌어진 사실을 밖에 나가서 발설했다가는 당장에 감장 콩알을 먹게 될 줄 알라며 협박했다. 그리고는 조서에 손도장을 찍으라더니 “너는 무죄석방이다” 하며 안전부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목전까지 치고 올라온 죽음을 풀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어리둥절했다. 작업반에 돌아가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천지를 진동시킨 일임을 알게 되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지하숙소복원과 복령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령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밥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햇살속에 숨겨진 은혜

장모님의 천국환송예배를 위해 자녀들과 함께 워싱턴 D.C.를 향해 가는데, 주일 밤의 피곤과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모든 예배들을 마친 후 조선일보 칼럼과 한국에 글을 써주는 일, 화요일 새벽 설교준비를 한 후 집에서 가방을 챙겨 바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의 만석에 가까운 비행기를 타고 밤을 지새는 일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워싱턴D.C. 공항에 내려 아침 찬 공기에 움츠리며 밖을 나왔는데, 남궁록 목사님과 안소영사모님 그리고 이일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국 환송예배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으며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절차와

진행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증거 되었습니다.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본당에서 드려진 천국환송예배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졌습니다. 꽃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장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꽃으로 가득하여 장모님의 환한 미소가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장으로 드려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복미총회 목사님들과 또 장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신의 화장과 한국 현충원에 안치하는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장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에 LA로 돌아와 화요일 새벽예배를 나가는데,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님께서 마음 가득히 '고난 총량불변의 법칙'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총량은 불변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종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7:10)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상 고난이 가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평소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고난이 가벼워진다는 '고난총량불변의 법칙'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저런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고난이 가벼워지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더욱 생각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

마기꾼

영국 신문 가디언에 한국말이 등장했습니다. '마기꾼(Magik-kun)'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한다며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마스크+사기꾼'을 줄인 말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원래 모습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사람을 '마기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 혹은 뭔가 가리려고 하는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 접근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뀐 것입니다. 여성들은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안 해서 좋다고

도 했지만, 이제는 마스크 자체의 디자인도 다양해져서 단순히 의료용이나 미세 먼지용이 아니라, 패션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을 가리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에 100% 자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설득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마스크를 우리의 결함을 가려주는 합법적인 도구로 등장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써도 누구 하나 벗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선글라스까지 쓰면 완벽한 얼굴 봉쇄입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인사는 하는데, 누군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 실루엣의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신비도 있습니다. 얼굴에 난 여드름, 주근깨, 뾰루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은 피부의

얼굴을 상상하며, 가려진 그림자 너머 멋진 상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마스크를 일상생활 중에 착용하다 보니 마스크 뒤에 감추려는 우리의 죄도 미화하는 습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린 라파엘의 작품을 보면 가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지만, 죄의 흔적을 덮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죄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피를 내어

죽인 동물의 가죽으로 인간의 주홍 같은 죄를 가리기 시작하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그때부터 나를 감추는 '마기꾼'을 얼굴에 쓸 이유가 없어 집니다. 지금의 나 자신보다 좋은 모습인 척하면서 남에게 보일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워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벌써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우리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무엇보다도 '마기꾼'은 반드시 벗어 버리고, 주님이 가려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멋진 미소를 띠며 다닐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액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월지급 조세,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담임목사 청빙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2001년 6월에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이민교회 경험자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www.tgsc.org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21일
제출처: rsong1010@gmail.com

기타

-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청빙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2531 W. 237th St. Torrance, CA90505

담임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교회(소개)**
 - 1) 이름: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Antioch Church of Las Vegas)
 - 2) 주소: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39 (702-749-9929)
 - 3) 현 소속교단: 해외 한인장로회 (KPCA)
 - 4) 교회 홈페이지: www.omychurch.org
- 지원자격**
 - 1) 미국 KPCA(해외한인장로교회)교단에 가입된 분이거나 가입할 수 있는 분으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 2) 이민 목회 경력이 5년 이상 되시는 분(부목사 포함)
 - 3)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
 -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포함, 최근본인 사진과 가족사진 첨부)
 -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 (동영상 또는 YouTube 링크)
 - 4) 최종 사역교회 후보 또는 홈페이지 주소
 - 5) 목사 2인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요망 또는 추천인이 이메일로 직접제출)
 - 6) 목회 비전과 계획
- 제출방법**
 - 1) 이메일: myungcho09@gmail.com
 - 2) 제출기한: 2022년 2월 15일
 - 3) 설교를 제외한 모든파일은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6)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경우, 청빙 결정후에도 취소될수 있습니다.
 - 7) 최종 후보자는 원본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위에있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이재훈 목사 저서 <전능자의 그날 아래 머물리라>

“믿음이 사라질 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이재훈
두란노 | 188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새겨 두신
'복음 언약'
그 언약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조이자 성경 인물 중 다윗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의 생애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수가 마치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저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그의 저서 <전능자의 그날 아래 머물리라>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여행하면서 오직 은혜로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더 경외함을 가지고 경배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이 책은 △소망이 없을 때, 은혜를 주시다 △믿음이 사라질 때, 언약을 주시다 △낙망할 때, 새 이름을 주시다 △나를 내려놓을 때, 웃음을 주시다의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믿음이 사라질 때, 언약을 주시다"가 눈길을 이끈다.

이 목사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닐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애굽에 내려가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은 약했지만 아브라함은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시험 앞에 흔들리면서 그는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처럼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고 두려움에 흔들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왔다. 아브라함은 돌아온 후 전에 장막을 쳤던 벤엘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는 애굽에서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나아오게 되었다"라며 "이때부터 벤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다. 후에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도 하나님은 이 벤엘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다. 우리에게도 벤엘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영적 장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아직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한 채 나그네로만 살아가야 했다. 그 땅을 얻기 전에 먼저 훈련되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예배의

삶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 주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앙은 신비다.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때는 반드시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미리 다 알려 주시지 않는다. 성공을 미리 알려 주면 교만해지고, 실패를 미리 알려 주면 낙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한꺼번에 자라지 않고 한 걸음씩 자란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 섭리의 신비를 체험하며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신비로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전능자의 그날 아래 머무는 자들이 체험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믿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신비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다.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고, 참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믿음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다. 위를 보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변함없이 펼쳐져 있다. 고대로부터 밤하늘의 수 많은 별은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는 창문이었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성경에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다. 그를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려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요, 의인의 길인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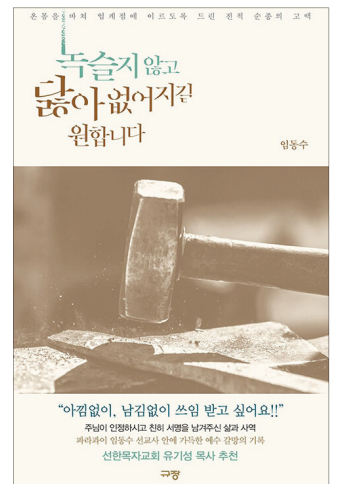
[신간]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규장문화사가 임동수 선교사의 신간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를 오는 7일 출간 될 예정이다. 이 책은 저자가 19년째 파라과이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그의 사역 초창기부터 써온 그의 일기 중 후반부의 일기 100여 편을 가려 뽑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지구 반대편의 원주민들과 살며 여러 번의 풍토병과 강도와 살해 위협과 소문과 비방과 차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 주민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저자는 "선교지의 모든 상황과 사역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일이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굳은살이 박히고 관철이 망가지면서 벽찬 노동의 수고를 감당했다. 비록 육체는 낡아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예수님과의 성숙한 동행의 기쁨을 일기에 담아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나의 수고로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나의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 하루에 수백 킬로를 운전하고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

는 노동을 하고 부딪히고 병이 들면서 닳을 대로 닳아버린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며 그 일을 위해 온전히 닳아진 것을 보면 세상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한 '닳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다. 육신은 닳을지라도 그로 인해 오히려 내 영은 녹슬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생명의 새 영이 되는 '거룩한 마모'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불평함도 자랑함도 없이 닳고 닳아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갈망하는 독자들이 이 갈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임동수 선교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동신대학교원을 졸업했으며 2004년 1월부터 파라과이 선교사로 첫발을 내딛은 후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현지에서 원주민과 라니족과 같이 살며 복음을 전파하며, 2006년 센터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는 사역과 고아원과 초등학교와 마약중독자 재활센터를 세워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 주민과 성도의 필요를 섬기고 있다. 또한, 파



라과이 감리교회와 유니언 신학교를 세워 대표와 학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가 있다.

최승연 기자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내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 2022년 3월 27일까지(청빙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www.sunhanchurch.com

유치부 사역자 청빙

Kindergarten Pastor, Part-Time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Chino Hills. GSPC is a member of the ECO denomination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e are in the process of hiring a part-time pastor to lead our Kindergarten department. We are look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teach, and guide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a part-time position for Friday evenings and Sunday Worship and Bible Study. There are currently 8 staff members serving in the ministry. Homepage: www.sunhanchurch.com

Qualification:

- 1. Currently enrolled in or graduated from a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 2.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in Korean with the parents.
- 3.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 4.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Application:

* If you feel GSPC would be a good fit for you, please email your resume with a picture (with your family if applicable), and a letter of introduction and spiritual journey. *Please include 2 letters of recommendation. (Preferably from direct supervising pastors and/or church leaders who have known you well in the ministry context). The format should be a simple letter that describes your ministry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people.

*Please email your documents to resume@sunhanchurch.co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지금 우리 학교는> (1)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개봉과 대중문화 속 좀비

대중문화 속 좀비에 투영된, 왜곡된 죽음 이해 원작 웹툰, 고교 과학실에서 좀비 탄생해 확산 좀비, 사머니즘에 기독교 부활 신앙 섞은 현상 기독교적 육체의 죽음·부활, 영혼 기능 비틀어

◆**좀비와 바이러스**: <나는 전설이다>로 정형화된 대중문화 속 좀비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1월 28일(오는 금요일) 공개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실사화한 작품이다. 연재 당시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웹툰 서사를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라 세간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드라마의 장르는 좀비 스릴러이다. 기존에 영화 쪽으로는 <부산행>이, 그리고 드라마 쪽으로는 <킹덤>이 한국형 좀비물로 흥행몰이에 성공한 적이 있는 만큼, 장르를 고려한 흥행 기대감도 상당하다.

작품의 배경이 특이한데, 수도권권의 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좀비 바이러스 확산 발원지가 고등학교 과학실로 설정되어 있다.

원작 웹툰 연재 당시 독자들의 연령대가 주로 10대와 20대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학원물과 좀비물의 적절한 조합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즉 현저한 저출산 및 빠른 고령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현실을 다룬 학원물에 대한 관심이 미디어 시장에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오징어 게임>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흥행 성적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한 작품이고, 그간 한국형 좀비물이 아시아 시장에서 준수한 흥행 성적을 거뒀던 점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는 하다.

이전 <반도>에 대한 평론에서 논한 바 있듯, 좀비란 카리브해로 팔려온 서아프리카 노예들

이 발전시킨 사머니즘 종교문화의 산물이다. 아이티를 중심으로 발흥한 부두교 신앙에서 좀비란 주술사가 정신을 조작해 백치 상태로 만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주술적 개념에 미국의 기독교적 부활 신앙이 혼합되어 탄생한 대중문화 소재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좀비의 이미지이다.

이 좀비라는 소재에 바이러스를 접목한 작품의 대부분 격으로는 미국의 작가 리처드 매드슨이 1954년에 발표한 소설 <나는 전설이다>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인류가 좀비가 되어 멸망한 원인은 핵전쟁으로 생겨난 변종 박테리아였다.

이로써 대중문화 속에서 좀비와 미생물의 본격적인 결합이 시작되는데, 이런 경향은 1996년 발매된 캡콤의 비디오 게임 <바이오 하자드>의 흥행과 2002년 개봉된 좀비 영화 <레지던트 이블>, <28일 후> 등을 통해 좀비물의 공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좀비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는 죽음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는 데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자극하는 데 있다. 원래 아이티 부두교에서 좀비화(화)란 개개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주술 개념이었을 뿐, 병처럼 확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매드슨의 소설 <나는 전설이다>와 1968년 개봉된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설정 덕분에, 좀비도 뱀파이어처럼 물리면 똑같이 좀비가 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애초 <나는 전설이다>에서 좀비화된 이들의 상태가 거의 뱀파이어처럼 묘사된 것을 보면, 오늘날의 좀비물에는 뱀파이어 전설의 영향도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좀비와 기독교 신학: 죽음, 부활, 영혼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의 왜곡**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한국형 좀비 학원물, <지금 우리 학교는>.

고대 서구 문화권에서 죽은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리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예외적으로 고대 이집트 종교에는 죽은 몸의 부활 개념이 있었다.

이집트 <사자의 서>는 살아생전 지은 죄의 무게를 담은 인간의 심장을 저울에 달았을 때 여신 마트의 깃털보다 무겁지 않으면 보상으로 몸의 부활에 이른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신화의 경우 부활보다는 영혼의 환생이라는 개념이 내세관을 지배한다. 환생이란 영혼은 그대로이되, 아예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 종교 고유의 정령신앙, 즉 물활론(Hylozoism)의 핵심에 자리잡은 믿음이다. 훗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활론적 환생 이론을 인간과 동물, 그리고 사물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데 적용한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데아로부터 반복적으로 이탈해서 현상계에 육화되는 것을 환생이라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 부여한 목적인(인)에 따라 육체에 깃들어 생물의 존재를 완성시켜가는 힘을 영혼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의 죽음으로 해당 생물의 영혼은 소멸되되 그 완성에 이른 존재의 발자취인 현실화의 궤적은 신에게로 다시 회수되어 향후 세계의

현실대로 종합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주후 1세기경 기독교가 서구 각지로 전파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서구의 내세관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철학적 죽음 이해도 새롭게 수정, 발전되는데, 플라톤의 영혼에 관한 이론은 4-5세기경 어거스틴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은 13세기경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재구성된다.

어거스틴은 환생에 대한 플라톤의 믿음은 부정하면서도, 영혼이 이데아와 같이 순수하게 관념적이고 영적 상위의 차원에서 왔다는 교설은 받아들였다. 이에 어거스틴은 영혼이 몸의 죽음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죽은 몸 또한 되살아난다고 가르쳤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세운 영혼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은 부정하면서도, 몸이 죽었을 때 영혼 또한 활동이 중단된다는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인간의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는 영혼이 마치 소멸되듯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가 부활 때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혼의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가르쳤다.

이렇듯 중세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의 상태와 부활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두 갈래

의 서로 다른 믿음은 이후 여러 모양새로 발전되어 기독교 신학 역사 속에 전해지게 된다.

오늘날 대중문화 속 좀비에 대한 묘사 가운데는 육체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혼의 기능에 대한 이 두 방향의 기독교적 가르침이 기교하게 비틀린 채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좀비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정상적 생체 기능이 완전하게 붕괴되는 단계는 땅에 속한 인간 육체의 죽음에 대응된다.

다음으로 원래 인간으로서 갖고 있던 지성과 인격이 완벽하게 소멸되는 점은 몸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활동이 멈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아퀴나스 식의 죽음 이해를 반영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간의 생체 기능과 지성, 인격이 모조리 무너진 채 몸이 썩어가면서도 움직이는 상태는 플라톤-어거스틴 식의 죽음 이해, 즉 몸이 죽어도 영혼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처럼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 정형화된 좀비의 이미지와 특성은 기독교 신학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영혼의 상태에 대한 가르침을 기교하고 혐오스러운 모양새로 비틀어 놓은 왜곡의 산물로 보인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참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참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